

보스턴, 신축 건물에 넷 제로 탄소 배출 기준 적용

<https://www.constructiondive.com/news/boston-net-zero-zoning-law-new-construction-operations-sustainability/739311/>
<https://www.democraticmayors.org/pressandmediablog/facilities-dive-boston-expands-net-zero-emissions-requirements-to-new-buildings-large-additions>

보스턴 조닝 위원회는 대형 신축 건물들이 개장일로부터 탄소 배출량을 제로(net-zero)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소 배출량 제로(net zero carbon) 조닝 규칙 수정안을 승인하였다.

보스턴 시장실에서 발표한 설명에 따르면, 대부분의 신규 개발 사업은 개장 시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며,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. 이는 미국에서 건물에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정이다.

시에 따르면 보스턴시 전체 탄소 배출량 중 건축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70% 이상이다. 이에 새로운 건물의 운영 성능 요구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,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전기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후에 미치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.

새로운 조닝 규칙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제출된 신규 프로젝트이면서, 15개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거나 최소 2만ft² 규모일 때 또는 기존 건물에 5만ft²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적용된다. 해당 건물들은 매년 5월 15일 까지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을 보고하고, 보고된 데이터를 검증하며, 연간 배출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. 다만 리노베이션, 5만ft² 미만의 추가 건축 및 용도 변경 프로젝트는 적용에서 제외하며, 새로운 병원과 제조 공장은 2045년까지 준수해야 한다.

미셸 우(Michelle Wu) 보스턴 시장은 이 규정이 “2050년까지 도시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건물 개발의 촉진을 목표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